

#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 '순항'

### 시, 2025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다양한 관광 정보·편의시설 제공 등 동부권 관광거점 자리매김 기대

전주역 이용자와 전주 동부권 시민, 완주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역에 인접해 있는 옛 농심창고 건물에 대한 해체 심의 및 허가를 받는 등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역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감도

시는 7월까지 기존건물 철거를 완료한 뒤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으로 인해 주차난이 예상되는 오는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전주역 이용자를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건물 철거 후 순환공재를 포설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내년 1월부터 오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관련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 일환인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은 국비 56억원, 도비 81억원 등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 6층의 연면적 약 5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108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환승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국

△홍보관(2층) △회의실 및 다목적미디어랩실(3층) △사무실과 다목적라운지(4층) △입주기업 사무실(5층) △전주관광 유관기관(6층)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완공되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여행객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복합환승장 기능도 갖춘 만큼 전북 동부권 관광을 위한 관광거점이자 전북 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개발조성실장은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과 연계한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을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북의 동부권 관광의 관문으로 기능을 확대해 전주가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동 보조기기 24시간 야외 충전시설 확대

### 전주시, 전동 스쿠터·휠체어 이용자 이동권 보장 위해 추가 설치

전주시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동 보조기기 야외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주공아파트 2단지 옆 평화체육공원과 평화동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월드컵경기장 광장, 인후동 중증장애인지원센터 등 4곳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야외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전동 보조기기 충전시설은 기존 실내 충전시설 56곳을 포함해 6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야외 충전시설은 7월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인구 증가 및 노령인구 비율 증가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현재까지 전동보조기기

구매 지원자만 3000여 명에 달하며, 사비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구매하는 시민을 고려하면 그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단체 및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심야에도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 전동보조기기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게 됐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심야에 충전할 곳이 없어 이동이 제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많은 분이 안심하고 도심을 다닐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야외 장소를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했다"면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이동약자의 이동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인구감소와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국 55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시는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9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시 차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주제로 차매안심

마을로 지정된 차매 위기 가구에 △AI 친구맺기(AI활용 안부케어콜/AI차매조기진단) △스마트 플(지능형CCTV, 비상벨 등)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가 차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차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차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맛배달' 누적 매출액 60억원 돌파 기념 혜택 확대

### 할인쿠폰 지원 등 다양한 추가혜택 제공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누적매출액 60억원 돌파 기념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추가혜택을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6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누적매출액 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전주맛배달에는 현재 3600여 가업가맹점과 소비자 5만6000여명이 참여해 누적 주문건수 28만 건을 기록하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함께 상생하는 대표 경제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7월부터는 기존의 할인쿠폰 지원 혜택을 소폭 확대해 월간 할인쿠폰(3000원)과 함께 주중 할인쿠폰(2000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치솟는 외식물가와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문 포장 쿠폰과 배달비 지원 쿠폰(최대 5000원)을 각각 1회

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 추진하는 경기 티켓 이벤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전주맛배달을 통해 주문한 이용자와 팔로우 인증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북현대모터스FC의 경기 티켓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주맛배달에서 진행되는 기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 관련 사항은 전주맛배달 블로그(blog.naver.com/jj\_order) 또는 인스타그램(@jj\_order)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주맛배달 정기배송 구독서비스를 7월 말 정식 런칭해 다양한 유형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유통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구독상품권 입점 신청은 전주시 소재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서와 필수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통신판매



전주맛배달 7월 할인쿠폰 홍보용 이미지

업 신고증을 온라인(www.전주구독.kr)으로 제출하면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입점하게 된다.

구독상품권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낮은 PG수수료(1.98%)와 3% 수수료(가맹비, 수수료, 광고비 0원) 등 기존 혜택이 제공되며, 올해 6월 이후 사업 참여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고하거나 제품 소개페이지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주맛배달이 지자체 공공배달

앱의 성공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미 전주시 민생경제과장은 "배달앱 시장이 위축되고 배달업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맛배달이 누적매출액 60억 원을 달성하게 돼 기쁘다"면서 "전주맛배달의 활성화와 새롭게 추가될 구독서비스의 성공적인 인착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필요성' 직원 교육 실시

전주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직원 교육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제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필요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전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강연했다.

권 소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배경과 필요성 △목표 이행과제 모니터링을 위한 실무 부서 담당자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계획과의 관계 △지자체의 역할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와 모니터링 추진과정,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제 모니터링을 위한 실무 부서 담당자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